

정책동향

## 수입선 多邊化 품목 일부 해제

통상산업부는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98년 1월 1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현재 113개 품목에서 88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 輸入先 다변화 해제대상품목(전기관련)

HS	품 목 명
8502 20 1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KVA이하)

이번에 해제되는 품목중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75KVA이하) 등 주요 중공업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통산부는 금년 1월부터 해제되는 이들 품목은 수출비중이 크거나 국산화율이 높아 어느 정도 대일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현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내수시장 규모 및 국내수요 측면에서 대일수입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엄선했다고 밝혔다.

▲ 수입선 다변화 품목(전기관련)

HS	품 목 명
8502 12 0000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90	○ 전동기속도제어장치(삼상 0.5KVA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 함마드릴 및 드릴구경 25mm 이상이며 소비전력 1000W 이상의 것은 제외
80 0000	○ 기타의 수직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 함마, 고주파전동공구, 충전식드릴 및 임팩트렌치는 제외
8516 60 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36 20 0000	○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차단기(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8536 50 400	○ 전자개폐기(Magnetic Switch)(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승인기관

승인기관	생산기술개발대상품목	
	HS	품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16	전기밥솥
	8536	전자개폐기

## 산업설비 수출금융 확대

통산부는 수출부문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산업설비 수출금융을 지난해 5조3,350억원에서 올해에는 6조4,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산업기술자금도 7,676억원으로 늘려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난국의 돌파구 마련이 급선무

라고 보고 총력수출 지원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산업설비 수출금융을 지난해 5조3,350억원에서 올해에는 6조4,7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자본재산업의 해외 수요기반 확충과 수출경쟁력 지원강화를 위해 산업설비 및 기계류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유도전동기 수출산업 육성

유도전동기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중기청은 지난해 8~9월 전국 47개 유도전동기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가능성이 있는 생산업체를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의 유도전동기 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98년 1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업체간 공동 연구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표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내에 유도전동기 중소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소량다품종의 다양한 유도전동기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해 제품간 호환성, 범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출촉진을 위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ISO, CE마크 등 국제인증마크를 공동으로 획득해 소요경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고 해외전시회에 업계 공동의 한국관을 마련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소화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국립기술품질원 등과 연계해 국내외 기술이전 정보의 중개·알선, 기술적 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서 자체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중소기업체 기술개발 요원이 해당 연구소에 상주하면서 기술인력,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유도전동기의 가격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중국, 대만 등 경쟁국과는 품질차별화를 이뤄 2001년부터 고기술, 고부가제품의 수출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유도전동기는 가전기기, 전동공구 등 산업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반기술산업으로 '96년 무역수지가 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국립기술품질원, 전기·전자제품 독일과 인증 합의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독일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시험·인증시험소(VDE)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EU)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국립기술품질원의 시험에 합격하면 유럽지역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유럽연합업체들도 VDE의 시험성적서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 마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번 VDE와의 상호인정 합의로 전기전자기기를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EU 지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현지로 가져가 현지에서 시험을 거침으로써 수수료 운송비 부담과 소요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어 왔다.

## 서울시, 中企에 810억 조기 지원

서울시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810억원을 이르면 3월 초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액인 445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에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연리 8%이다.

지원 대상은 관할구청에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체나 제조업 지원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서울 입지 특성에 적합한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우수 전통공예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다.

특히 수출업체나 준공업지역 소재 제조업체와 노사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융자대상 기업 선정 등을 거쳐 융자대상업체에 통보되며, 융자대상업체는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 제공이나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12월 21일~2월 20일 서울시 중소기업과(02-3707-9353~4)나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02-769-6603~9)에 제출하면 된다.

## 연구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은 IMF 합의 이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활동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 및 11개 지방청(소)의 시험·분석 설비를 완전 개방하고 연구·개발관련 시험수수료를 대폭 감면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국립기술품질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중소기업청의 기술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의뢰하는 시험·분석수수료 및 설비사용료에 한하여 감면해 주고 조차 간단한 일부 설비만을 개방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가의 최신 고정밀 시험·연구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개방하고, 특히 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한 시험수수료 및 설비사용료를 전액 면제함과 동시에 납품증명용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시험수수료와 설비사용료를 50% 감면키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설비 사용신청시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하여 설비사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단체 또는 조합 등이 의뢰하는 시험수수료와 설비사용료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청의 전문기술인력과 시험·연구설비를 총동원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